

#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 4년 만의 드라마 복귀... 연기 기대



이영애는 초등학교 5학년 시절 '주니어' 잡지 표지 모델로 데뷔해 1990년 '투유 초콜릿' 광고에 출연하며 대중에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는 '투유 초콜릿' 광고에서 중국 배우 유덕화의 상대 역으로 출연했다. 이후 이영애는 "당시 투유 초콜릿 모델을 하면서 백화점에서 다른 초콜릿을 파는 판매사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이 모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비밀로 했다. 또 사람들이 날 알아보면 난 그 사람이 아니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하며 이 광고와 관련된 일화를 털어냈다.

어린 나이부터 뽀얀 피부와 청순한 외모를 지녔던 이영애는 초콜릿 광고를 눈여겨 본 화장품 회사 '태평양'으로부터 광고 모델 제의를 받는다. 화장품 모델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이영애지만 태평양(현 아모레퍼시픽)의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전속 모델로

캐스팅돼 태평양의 제품 '마몽드'의 새 일괄로 발탁됐다.

광고에서 이영애는 "세상은 지금 나를 필요로 한다. 산소같은 여자!"라고 말하며 올림머리와 트렌치코트의 깃을 올린 도회적인 이미지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렇게 이영애에게 '산소 같은 여자'라는 별명이 붙게 됐다. 이영애는 최근에도 화장품 브랜드 '후'와 재계약하며 세월이 흘러도 꾸준히 화장품 모델로 발탁되는 대한민국 대표 동인 연예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마몽드' 광고 출연 이후 본격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한 이영애는 1993년 SBS 드라마 '백의 남편은 어머십니까'에서 CF 속의 이미지를 깨고 본격적으로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SBS '아스팔트 사나이'(1994), MBC '사랑과 결혼'(1995), KBS '교과'(1995), SBS '불꽃'(2000) 등의 드라마를 통해 꾸준한 연기



단독주택

서울 용산구 한남동

를 선보이다 2003년 방송된 MBC '대장금'을 통해 대표적인 한류스타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2009년 정호영 전 한국레이컴 회장과의 결혼 후 활동이 뜸해졌지만 2017년 SBS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로 '대장금' 이후 13년 만에 안방극장에 돌아오며 화제를 모았다. 이영애는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 신사임당 역할을 맡아 열연을 펼

쳤다.

이영애는 영화에서도 인상 깊은 연기를 펼쳤다. 그는 '인살라' '공동경비구역 JSA' '선물' '봄날은 간다' '친절한 금자씨' '아랫집' '나를 찾아줘' 등에 출연했다. 특히 박찬욱 감독의 '친절한 금자씨'에서 "너나 잘하세요"라는 명대사를 남기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영애는 이 영화에서 누구에게나 친절하지만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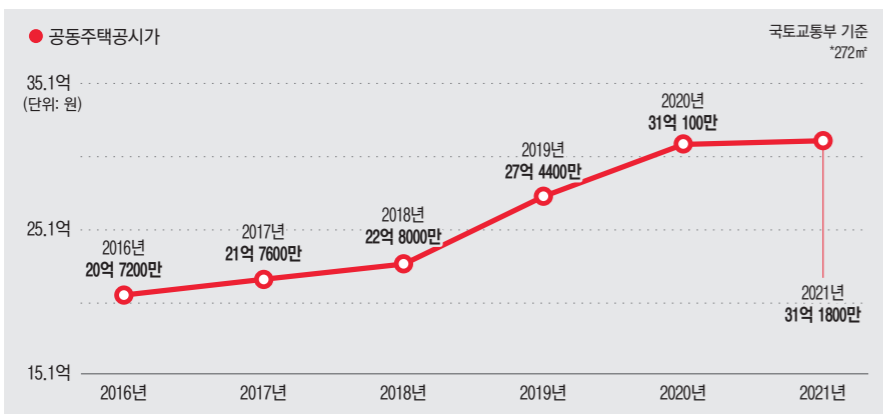
신을 죄인으로 만든 백 선생에게는 처절한 복수를 준비하는 금자 역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편 이영애는 '사임당 빛의 일기' 이후 4년 만에 JTBC 드라마 '구경이'로 안방극장에 복귀한다. 이 드라마에서는 이영애는 세상을 등진 채 살아가던 전직 경찰 출신 구경이 역을 맡아 보험 사기 사건을 조사하던 중 완벽하게 사고로 위장된 범인 없는 살인 사건의 진범을 추적하는 보험 조사관의 삶을 연기한다.

이영애가 연기하는 구경이는 정의 실현보다는 미제 사건 해결 자체에만 희열을 느끼는 비상한 두뇌의 소유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맹렬하게 사건의 진실을 향해 돌진하는 인물이다. '구경이'는 10월 방송을 확정하고 이달 촬영에 돌입했다. 오랜만에 안방극장으로 돌아오는 이영애가 이번엔 또 어떤 감렬한 연기를 선보일지 대중의 기대감이 쏠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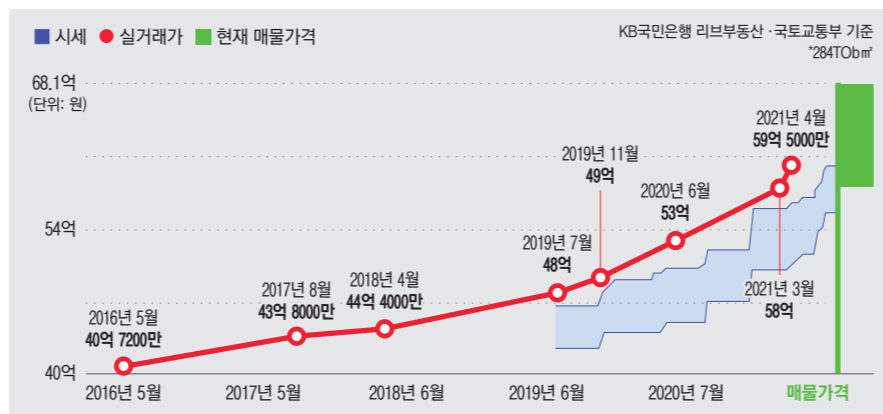
## 힐탑트레저

서울 용산구 한남동 77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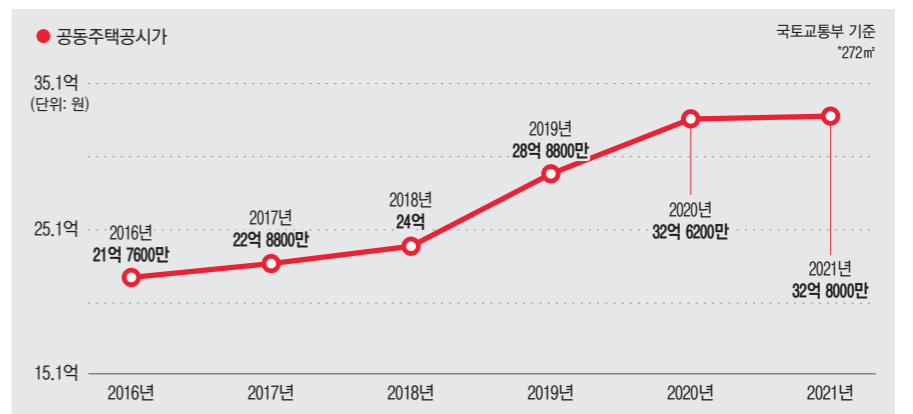
## 한남더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810



## 힐탑트레저

서울 용산구 한남동 775-2



## 권준 힐탑리더자산운용 대표이사

권준 피델리티자산운용 대표이사는 미국 컬럼비아대학교를 졸업하고 예일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투자은행(IB)과 주식영업 등 다양한 금융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투자전문가다. 골드만삭스 홍콩, 서울 기업금융-주식부문에 근무했으며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법인 법인장 부사장,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 경영부 대표 등을 역임했다. 2014년 피델리티자산운용에 합류해 채널영업본부 부부장 전무를 거쳐 2015년 피델리티자산운용 대표이사가



됐다. 이 회사에서 한국인이 대표이사가 된 것은 2004년 법인 설립 후 처음이다. 그는 취임 당시 "피델리티자산운용이 한국 시장에서 쌓아온 해외투자 전문성과 개인 및 퇴직연금 시장에서 리더십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고객우선 투자솔루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 진(김석진)

진은 뛰어난 외모로 인해 중학생 시절 SM 엔터테인먼트로부터 캐스팅 제의를 받았다. 1차 오디션에 합격했으나 했으나 사기인줄 알고 거부했다고 한다. 이후 건국대학교 영화예술학과에 입학한 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관계자에게 캐스팅돼 방탄소년단 멤버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그룹에서 서브보컬을 맡고 있는 그는 특히 노래를 통한 감성표현이 탁월해 발라드에 매우 잘 어울린다. 방탄소년단은 RM,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진, 정국이 속한 7인



## 이상훈

이상훈 전 두산 사장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대학원에서 물리학 석사 및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1994년부터 2003년까지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에서 일하며 김용성 전 두산인프라코어 사장과 함께 한국인 최초의 맥킨지 파트너를 역임했다. 2004년 두산으로 자리를 옮겨 두산 부사장 등을 맡으며 두산그룹의 인수합병의 핵심 조직인 기업금융프로젝트팀에 소속돼 회사의 급격한 인수합병을 성사시킨 바 있다. 또한



2010년에는 핵심 업무인 재무와 함께 구조조정-경영계획을 주도하는 두산 파이낸스 사장을 맡았다. 이상훈 전 사장은 지난 해까지 헤럴드경제에 '특별기고' 시리즈로 칼럼을 썼으며 현재는 이데일리에서 '이상훈의 신경영 비전' 칼럼을 연재 중이다.



##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 모범관리단지 3곳 선정 위한 공모 시작

대전광역시

대전시는 2021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을 위해 각 구청에 계획을 통보하고 후보 단지 추천을 받기 위한 공모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8월까지 각 구청장 추천을 받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9월 중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의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3개 단지를 선정해 10월 중 시상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지에는 모범관리단지 인증패 및 인증 동판이 수여된다.

모범관리단지 선정은 일반관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등 4개 분야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로 진행되며 단지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해 규모별 1개소씩 총 3

개 단지를 선정한다.

이 선정 사업은 투명한 아파트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살기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우수관리단지 선정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는 '이웃 간 분쟁 해결' '근로자 상생' 등 공동주택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에 비중을 두고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1년 시 모범관리단지 선정된 단지는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하는 전국 우수관리단지 평가에 추천하고 내년도 노후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과 공동체 활성화사업 등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중구 버드내마을아파트, 유성구 삼성푸른아파트가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됐으며, 이 중에서 버드내마을아파트는 국토교통부 주관 전국 우수관리단지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효식 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분쟁 없는 아파트 공동체 조성과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정착을 위하여 모범관리단지 발굴과 우수사례 전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도시·군관리계획 위원회 개최... 용도지역 변경 등 시행

경상북도 경산시·성주군·영주시·울진군

경북도는 18일 제6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울진군관리계획 변경 등' 4건에 대해 원안 및 조건부가결 등을 심의·의결했다.

경북도는 18일 제6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울진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등 4건에 대해 원안 및 조건부가결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산과 성주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건에 대하여 도시 전체 상위계획의 정책 방향과 지역 여건변화 등을 반영한 장기발전계획을 구체화해 불합리한 용도지역

등을 5년마다 재정비하고 2025년 목표로 도시·군관리계획을 각각 수립했다.

경산시 주요 내용은 △기존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민원 및 여건 변화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58개소) △비도시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지역 등 토지이용 현실화(851개소) △자연취락지구 신설 및 개발제한구역 폐지 등(7개소) △도로 등 교통시설과 공익시설 신설 및 변경(22개소)이 재정비안에 포함됐다.

성주군 주요 내용은 △기존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용도지역 변경(21개소) △비도시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지역 등 토지이용 현실화(1106개소) △자연취락지구 및 개발제한지구 신설·폐지 등(15개소) △도로 및 하천 등 도시계획시설을 신설하고 폐지 및 변경(37개소)이 재정비안에 포함됐다.

이번 위원회는 논의 끝에 적법 훼손지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 일부를 수용하고

나머지는 도의 검토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가결했다.

영주 상망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건은 영주시 상망동 일원, 택지공급 및 도시개발시설 확충을 위하여 민간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A=7만 3223㎡, 767세대) 사업이다. 시행자는 개발계획단계에서 지역 주민들이 건의한 근린공원 및 주차장 부지 확보, 목욕탕 등 주민 공동 이용시설을 계획에 추가 반영했다.

위원회의 잔·출입로 교통소통대책과 도시경관, 절개지 등 종합적으로 검증 논의한 끝에 구역 위쪽의 기존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도의 검토의견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가결했다.

아울러 실시계획 인가 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가용택지구 등 신시가지 개발로 인한 구시가지의 공동화 현상 방지, 아파트 밀집 지역 사이 새로운 주거단지 확충 및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 시설 정비가 완료되면 정주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